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5 면 에서 계속

군중들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혼돈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묘의 정으로 가슴눌러 이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영광이 차넘치는 광장으로 공화국기폭풍대렬, 당기폭풍대렬과 청년들의 증폭대렬, 군인가족,

과학자, 교원, 보건일군, 체육인, 예술인대렬을 비롯한 각계층 시위대렬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의 영광을!》, 《사회주의 승리를 향하여!》,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원수님 계시어 우리 식 사회주의는 승리한다》, 《일심단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만리마속도, 강원도정신》 등의 글말이 무각된 가장물, 구호관들과 함께 용용히 흘러갔다.

시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미증유의 변혁을 창조하여온 주체조선의 영광찬란한 행로를 긍지높이 펼쳐보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집행하기 위한 전민 총동원전에서 보다 큰 기적적성과들을 창조하여 만리마속구대회장에 떼땀이 떨어질 철석의 의지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생선으로 이어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철용같이 뭉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음을 보여주며 주석단열을 지나가는 시위참가자들의 기세는 더욱 고조되었다. 세상에 없는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새겨주며 광장바닥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축 4.15》, 《결사옹위》, 《자력자강》, 《조국통일》 등의 글말들과 당기, 공화국기가 편이여 펼쳐졌다.

총합군악대가 《김정은장군찬가》의 주악에 맞추어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당마크와 당기를 새겨며 군중시위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경축의 속도가 리적오르고 고무용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석단열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나갈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철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